

통일교 수행방법과 영성계발

이 재 영
선문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통일교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성계발의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교 교리서나 창시자의 설교집을 보면 영성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영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는 용어로 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심정이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 충동”을 말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말이고 창조본연의 인간 본성을 대표하는 말이다.

종교교육의 목적은 영성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고 종교교육의 과정은 영성계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영성계발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의 영성계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심정이다.

통일신학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목적은 삼대축복의 완성으로 본다. 즉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의 주관성 완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삼대축복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목적이 된다. 따라서 영성의 계발은 이 삼대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신학에서 영성의 개념을 대체하는 말로 심정이라는 말이 사용되며 영성계발은 부활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부활은 인간의 물리적 심령적 현상이 아니고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권대를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권대로의 복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지정의의 정신기능을 지닌 존재로서 행위에 있어서 진미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영성계발은 지적, 정서적, 행위적 발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세 차원의 영성계발을 위한 통일교회 수행방법으로 율법적 수행, 교리 수행, 성례전 수행, 자아실현 수행 등이 있다.

핵심 주제어 : 영성, 심정, 영성계발, 부활, 수행방법, 율법적 수행, 교리수행, 성례전 수행, 자아실현 수행

I. 들어가는 말

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은 영성의 개념을 말하면서 “영성이란 위험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영성은 그 자체로서 주제이며, 그것 앞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객체인 것처럼 느껴지는 주제이기 때문이다.”¹⁾라고 말하였다. 융이 영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은 영성을 정의 내리고 영성의 계발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종교학, 신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각 학문의 영역에서 영성은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의 응용분야에서 영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영성이 인격 성장과 완성을 위해서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종교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교육학에서 영성은 종교교육학의 목적 자체이고, 영성계발은 종교교육 과정의 핵심이 된다. 그것은 종교교육의 목적은 영성적 인간이 되는 것이고, 종교교육의 과정은 영성적 인간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에서 영성과 수행은 큰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선생이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신도들은 영성의 개념을 단순히 심령적 현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 문형진 목사가 통일교 협회를 이끌어 가면서 영성과 수행을 강조하고 통일교인들의 영성과 수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교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성계발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영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나 영성계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의 영성에 대한 이해와 영성계발을 위한 방법으로써의 수행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영성의 통일신학적 이해²⁾

통일교 교리와 신학의 원전(元典)이 되는 『말씀선집』이나 『원리강론』에서는 영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성의 개념을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영성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차원을 달리한 개념으로 “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³⁾ 심정은 영성의 개념과 본질

1) Ann Belford Ulanov, *Spirituality & Psychotherapy*, 이재훈 역, 영성과 심리치료(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회, 2005), 92쪽에서 재인용.

2) 여기서 통일신학이란 통일교의 신학 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말한다. 즉 『말씀선집』, 『원리강론』, 『통일사상요강』 등에 나타난 종교적 주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말한다.

3) 『말씀선집』은 『문선명 선생의 말씀선집』을 말하며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 선생의 설교를 묶은 500권

을 설명하는 외연을 갖고 있다.

통일교의 영성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심정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심정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외연(外延)이 영성 개념을 구성하는 외연과 같기 때문이다.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심정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영성의 개념과 같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이해하는 영성의 개념은 (1)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총칭한다. (2) 인간은 이 관계 맺음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한다. (3) 이 관계는 삶 전체를 통해 전개되며, 인간의 발달단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4) 이 발달은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5) 그리고 이 발달은 인간의 현재적 삶과 육체를 부정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⁴⁾

『말씀선집』이나 『원리강론』에서 심정의 의미를 규정하는 빈사(賓辭)나 서술어(敘述語)를 보면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사용하는 영성의 의미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심정의 개념에는 영성의 개념을 형성하는 외연(外延)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정을 규정하는 빈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 “창조의 심정” “복귀의 심정” “충절의 심정” “애달픈 심정” “체휼해야 할 심정” “뜻에 대한 심정” 등의 용어가 있다. 심정을 규정하는 이러한 빈사들을 통해서 심정은 감성을 표현하는 용어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정의 서술어를 보면 “심정을 상속하자” “심정을 알자” “심정이 통하다” “심정을 닦자” “심정의 세계” “심정의 부활” “심정의 주인공” “심정의 실체” “심정의 기준” “심정의 계발” “심정의 혁명”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심정에 대한 서술어를 통해서 심정은 깨닫고 계발시켜야 할 지적, 정서적, 행위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통일사상』에서 심정이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 충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⁵⁾ 심정은 하나님의 속성 즉 신성의 핵심으로 이 심정이 동기가 되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관계 맺는다. 즉 하나님도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 무엇인가는 기독교 신학담론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통일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안에 심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에게 내재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즉 심정을 상실한 인간을 타락한 인간이라고 한다. 심정에 대한 빈사와 서술어를 통해서 본 통찰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심정적 관계가 단절된 존재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사랑하고 기쁘고자 하는 충동 즉 하나님의 심

의 설교집이다. 『원리강론』은 통일교 교리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진술한 책이다. 『말씀선집』이나 『원리강론』의 주제어 검색에서 영성이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4) 손원영, 영성과 교육(서울: 한들출판사, 2004), 19쪽.

5) 통일사상연구원 편,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 58쪽.

정에 반응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

통일신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구원은 심정적 인간, 심정적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하여 감응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심정적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타락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를 이룬 메시아가 세상에 강림하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한다는 통일교 구원론은 기독교의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한다. 메시아는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된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심정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심정의 개념과 영성의 개념을 형성하는 외연들의 유사성을 말하였다. 그러나 심정과 영성을 규정하는 빈사나 심정을 설명하는 서술어의 차이를 통해서 두 단어가 갖는 의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원리강론』에서 모든 존재는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의 이성성상(二性性相)의 관계로 되어 있다고 본다.⁶⁾ 이러한 존재 방식에 의해 심정과 영성의 관계를 설명하면 심정은 성상이고 영성은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심정은 원인과 주체적인 입장이고 형상은 결과와 대상의 입장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통일사상요강』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로고스, 심정, 창조성으로 보고 있다. 로고스는 이법, 창조의 구상, 말씀 등을 외연으로 갖는 개념으로 로고스에 심정의 의지가 작용하여 피조물이 창조된 것으로 본다.⁷⁾ 즉 심정은 본질과 존재를 연결해 주는 의지요 에너지가 된다. 이와 같은 심정의 의미에서 영성은 심정에 의해 형성된 존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심정과 영성의 이러한 이해는 영성에 대한 환원주의(還元主義) 입장에 선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심정과 영성의 관계는 서로의 의미를 보충해 주고 온전하게 하는 상대적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심정의 빛에서 영성을 조명하게 될 때 보다 영성의 의미가 구체화 되고, 영성의 계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심정적 관계를 체휼할 수 있다. 심정과 영성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은 하나님과의 심정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되었다. 따라서 사랑하고 기쁘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하는 인간이 될 때 영성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둘째, 영성계발이란 심정 발달에 의해 영성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가는 것이다. 심정 발달의 목표는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심정은 인간에게 내재하여 있는 본성적 측면이기 때문에 심정의 발달 과정에서 인간의 영성의 깊이와 폭을 넓혀간다.

셋째, 영성은 심정적 관계와 생활에서 계발된다. 심정은 마음과 몸의 수수작용(授受作

6)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서울 : 성화사, 1991), 32쪽.

7) 『통일사상요강』, 58쪽.

用)에 의하여 계발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기쁘고자 하는 충동을 몸으로 실천하게 될 때 영성이 성숙된다. 따라서 영성은 하나님의 심정을 추구하며 대상을 사랑하고 기쁘고자 하는 생활을 통해서 형성된다.

넷째, 영성은 심정공동체 안에서 체출되고 성장한다. 특히 가정공동체는 심정을 체출하고 심정을 계발하는 심정공동체다.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자(父子)의 심정, 형제의 심정, 등 “사대심정권”⁸⁾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은 영성계발을 위한 최선의 장(場)이 된다.

Ⅲ. 영성적 인간 이해와 영성적 인간발달

종교교육의 목표, 종교교육의 과정, 종교교육의 방법 등 종교교육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어떤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종교교육의 목적은 영성적 인간형성이고 그 과정은 영성계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심정으로 본 인간의 창조와 타락

통일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재목적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창조목적은 알아야 한다. 신의 창조목적이 곧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신학에서의 창조론은 “심정동기론”⁹⁾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세계를 주관하라”(창세기: 1장 28절)고 하신 삼대 축복을 완성해야 한다. 삼대축복완성은 통일원리에서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이라는 말로 구체화 되고 있다.¹⁰⁾

삼대축복 완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목적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재목적이 된다. 즉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완성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존재목적이다. 따라

8) 통일교인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가정맹세를 암송한다. 가정맹세에서 “사대심정권 완성할 것을 맹세한다.”는 구절이 나온다. 사대심정권에 대한 해설은 Joong Hyun Pak and Andrew Wilson, 『True Family Valus』(New York: HSA-UWC, 1996) 참조.

9) 『통일사상요강』, 61쪽.

10) 『원리강론』, 53-55쪽.

서 이 삼대축복완성이 종교교육의 목적이 되며, 삼대축복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 종교교육과정이다.

삼대축복은 개인, 가정, 만물 등 세 차원의 관계성 완성을 말한다. 개성완성은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완성, 가정완성은 나와 너의 관계완성, 주관성 완성은 나와 만물세계와의 관계 완성을 말한다. 이 세차원의 관계에서 제 1축복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존재의 근원적 관계가 된다.¹¹⁾ 근원적 관계는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근원이요, 관계의 중심이 된다.

위 세 차원의 관계의 원인자(原因者)가 되고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동인(動因)이 되는 것이 심정이다. 심정은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상대를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충동이다. 따라서 심정은 선의 관계를 추구하며, 선의 관계를 활성화시킨다.

통일신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타락한 존재”로 이해한다.¹²⁾ 창조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심정적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무지(無知)한 인간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종교사역의 목표인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 의 원관계(原關係)를 터전으로 하여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만물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형성될 수 있다.

2. 영성계발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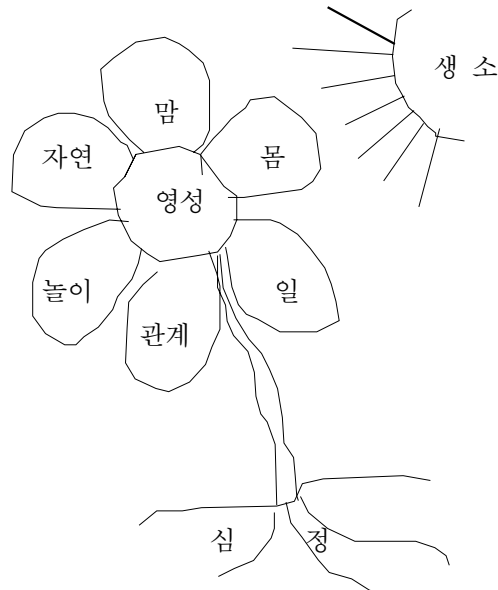
1) 영성계발의 통전성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영성계발을 논하게 될 때 개인적이고 관상적인 영역에서의 영성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영성계발이 이루어질 때 영성적 인간으로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관계, 일과 놀이 등의 전 영역에서 영성계발이 이루어질 때 전인적이고 건강한 영성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전인적이고 건강한 영성의 계발을 위해서는 인간의 전 삶의 영역에서 심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곧 사랑과 기쁨이 동기가 되어 자아, 이웃, 자연 등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은 영성계발의 요소를 몸, 마음, 관계, 직업, 놀이, 세상 등 6차원으로 말하는데¹³⁾ 통일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6차원에 유기적이고 통일성을

11) Martin Buber, trans. by Ronald Gregor Smith, *I and Thou*(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p.23.

12) 『원리강론』, 제 2장 타락론 참조.



부여해서 성장시키는 뿌리를 심정이라고 본다.

위 그림은 클라인벨이 사용한 것을 통일신학적 관점에서 변형시킨 것이다. 여섯 개의 꽃잎은 클라인벨이 사용한 영성의 여섯 차원을 말한다. 그는 꽃잎의 중심에 영성을 놓고 있는데 영성이 전인성(全人性)을 위한 여섯 차원을 한 데 모아주며, 인간의 전인성을 위한 여섯 차원을 유기적이고 통일성 갖도록 이끌어 간다.¹⁴⁾

클라인벨은 여섯 차원 중 “세상”을 넣고 있는데 우리말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다의적(多義的) 표현이기 때문에 필자는 세상을 “자연”이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영성의 계발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성계발을 위해서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통한 기쁨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위 그림에서 태양의 빛과 같은 영역을 생소(生素)라고 표현하였는데 생소라는 말은 통일신학에서 사용한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에너지다. 즉 인간의 속사람 영인체(靈人體)를 성장시키는 요소를 말한다.¹⁵⁾ 생소는 단순히 영인체만을 성장시키는 요소라기 보다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인벨은 꽃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필자는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심정이라고 본다. 심정은 사랑과 기쁨을 위한 충동으로 영성의 여섯 차원을 지지해 주고 이끌어 가는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13) Howard Clinebell, *Well Being*(New York: Haper Collins Publishers, 1992), p.6-7.

14) Howard Clinebell, 위의 책, p.80-85.

15) 『원리강론』, 70쪽.

2) 영성계발과 삼대축복 완성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삼대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되고 인간에게는 존재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삼대축복 완성은 영성계발의 목표이고 영성계발은 삼대축복의 완성을 위한 핵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영성계발과 개성완성

영성의 계발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분야가 마음과 몸의 통일이다. 마음과 몸의 관계는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의 이성성상(二性性相)의 관계로 마음이 주체가 되고 몸이 대상이 되어 하나가 될 때 개성을 완성한 인간이 된다.¹⁶⁾ 따라서 몸과 마음의 통일은 영성계발의 출발점이며 핵심이 된다.

통일신학에서는 창조본연의 인간은 선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타락성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즉 인간은 본래 선한 성품으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조상의 타락행위로 타락성을 갖게 되었다.¹⁷⁾ 이 타락성을 해탈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통일을 위한 수행과정이 필요하다.

타락성 본성은 인간조상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타락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죄성(罪性)으로 인간에게 유전되고 모방이 된다. 이 죄성은 시기, 질투, 교만 등으로 인간의 창조본성을 파괴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인간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타락성을 해탈하여 창조본연의 심정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

타락성은 태초의 인간조상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형성되면서 인간의 속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인간에게 유전되고 모방이 된다. 타락성은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의 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락성을 해탈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망이 선을 추구할 수 없게 된다.

통일신학에서 죄로부터의 구원받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을 복귀(復歸)라고 한다. 복귀란 타락한 인간이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귀원리에 의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복귀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탕감복귀(蕩減復歸) 원리다. 즉 인간이 타락성을 벗고 창조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탕감조건을 세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⁸⁾

영성계발이란 인간의 타락성을 벗고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나가는 복귀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탕감조건을 세워 타락성을 벗고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종교적 수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6) 위의 책, 53쪽.

17) 위의 책, 100-102쪽.

18) 위의 책, 228-230쪽.

(2) 영성계발과 가정완성

가정은 『말씀선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어 가운데 하나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라는 표어는 통일교의 선교의 목표이며,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참가정 실천 운동이 통일교 선교 사업의 중심이다.

통일교 선교의 목표는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통일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¹⁹⁾ 천국은 이상 가정을 확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²⁰⁾

통일신학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 받고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기 위한 장(場)이 된다. 하나님을 중심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사랑 안에서 심정일체의 가정이 되는 것이 가정완성이다. 따라서 가정을 통하지 않고 창조본연의 인간의 완성은 불가능하다.

가정은 인간 성장의 터전이고 성품이 형성되는 원천이다. 가정에서 형성된 영성이 통전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전적 영성이란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영성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형성된 영성은 관계성을 지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통전적 영성이다.

가정에서 통전적 영성생활이 이루어질 때 출산, 경제적 나눔, 전통과 인간의 사회화 등 가정의 기능이 온전하게 작용하게 된다. 가정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사랑을 지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심정이며 심정을 기반으로 한 가정을 영성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수행은 가정 안에서 영성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3) 영성계발과 만물 주관성 완성

셋째 축복에 해당하는 주관성 완성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주관성 완성이란 단순히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물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만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물로부터 창조주의 심정을 느끼며 만물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발현(發顯)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²¹⁾

『원리강론』에서 만물은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제로 전개해 놓은 대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그의 실체대상인 만물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²²⁾

만물은 인간의 영성계발을 위한 무한한 자원이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대상을 사랑하는 감성을 풍요롭게 할 수

19) 『말씀선집』, 제 23권, 54쪽.

20) 위의 책, 제 13권, 95쪽.

21) 『원리강론』, 54-55쪽.

22) 위의 책, 55쪽.

있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내적 구조가 형성되는 것”²³⁾이다. 따라서 건강한 영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만물과 사랑과 미(美)를 주고받는 심정적 교류를 해야 한다.

『말씀선집』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일은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²⁴⁾ 그것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물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神性)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관을 통해 만물을 보고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만물을 관조(觀照)하고 만물의 창조성을 느끼는 일은 영성계발을 위한 중요한 수행과정이 된다.

3. 신앙발달과 영성계발

1) 영성발달의 영역

통일신학에서는 모든 피조물은 성장기간을 거쳐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 시조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기간을 거쳐 성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²⁵⁾

통일신학에서의 성장과 완성이란 육신뿐만 아니라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을 의미한다. 영인체는 육신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영인체의 성장은 영성의 계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지정의(知情意)의 본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마음은 그 작용에 있어서 지정의의 세 기능을 하고 육신은 마음 곧 지정의의 감응체로서 진미선(眞美善)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진미선의 가치를 통해 인간은 발달하고 완성한다.

인간의 영성발달이란 진미선의 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차원이 인간 발달의 세 영역 즉 인지적 영성발달, 정서적 영성발달, 행위적 영성발달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간의 영성발달도 이 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인지적(認知的) 영성발달은 인간의 이성을 통한 지각 활동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식하여 하나님의 창조목적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행위를 지향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情緒的) 영성발달은 인간이 사랑과 미를 추구하는 감성의 발달이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주체는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상은 주체에게 미를 돌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23) 손원영, 위의 책, 37쪽.

24) 『말씀선집』, 제 9권, 174쪽.

25) 『원리강론』, 93쪽.

지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미를 돌리는 대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다.²⁶⁾

행위적(行爲的) 영성발달은 인지적 영역에서 일어난 지각에 의해 정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절대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선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의지는 선을 지향한다. 즉 하나님과 심정적 일체가 될 때 인간의 행위는 선을 지향한다.

인간의 영성발달은 인지적, 정서적, 행위의 조화로운 발달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과 훈련 그리고 생활에 의해 이 세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성계발을 위한 세 차원의 수행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인지적 영성발달을 위한 수행, 정서적 영성발달을 위한 수행, 행위적 영성발달을 위한 수행 과정이 있다.

2) 영성발달과 부활과정

통일신학에서 사용하는 부활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부활의 개념과 상이하다. 전통적 기독교에서 부활은 물리적, 심령적(心靈的) 현상으로 보고 있으나 통일신학에서의 부활은 물리적, 심령적 변화가 아니고 새로운 존재로의 복귀로 보고 있다. 인간의 주검에서의 부활이 아닌 비존재에서 존재로의 복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부활의 개념이 기독교와 다른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일원리에서의 죽음은 육신의 기능이 멈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관계없이 가치적인 면에서의 죽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을 떠난 것을 의미한다. 『원리강론』에서 말한 부활의 정의를 보면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즉 하나님의 사랑권내로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내에 떨어진 입장에서부터 복귀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주관권내로 복귀되어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만큼 부활한 것이다”²⁷⁾

위의 부활에 대한 정의에서 볼 때 통일신학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성발달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부활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가는 과정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영성발달로 보는 입장과 통일교회 부활의 과정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신학에서 부활은 인간 재창조의 과정이다. 창조의 완성을 위해 성장기간이 있듯이

26) 『원리강론』, 58-59쪽.

27) 위의 책, 178쪽.

부활도 완성을 위한 과정이 있다. 즉 부활은 소생부활, 장성부활, 완성부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부활의 과정이 영성발달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부활은 가치적인 면에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사람 즉 영인체의 성장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의 영인체는 육신의 성장과 더불어 완성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부활은 곧 영성계발의 과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부활이라는 말의 영성적 의미를 새겨보면 첫째,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내로 복귀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과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직접주관의 상대적 개념인 간접주관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의하여 인간 스스로의 책임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직접주관권내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를 말한다.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복귀의 과정이다. 통일신학에서 복귀라는 말은 중요한 개념이다. 복귀라는 말은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조상을 창조하면서 이상하셨던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함을 의미한다.

셋째, 부활이란 구원을 위한 과정적 현상이다. 통일원리에서 말하는 부활은 일회적인 회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활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음을 말한다. 즉 영성계발이란 일회적인 회심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심정의 발달을 의미한다.

위의 부활에 대한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은 영성계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성계발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을 위한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통일신학에서 그 단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 과정으로 보며 소생기 행의시대(行義時代), 장성기 신의시대(信義時代), 완성기 시의시대(侍義時代)로 구분하고 있다.²⁹⁾

소생기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시기를 말한다. 행의시대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신앙보다 “하라”는 지시명령이나 “하지마라”는 금지명령 같은 명령적 계율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계율을 지켜 나가거나 마음과 몸의 일체를 위한 율법주의적 수행과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장성기 신의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시기로 믿음을 완성시키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의하여 신앙을 갖는 관념적 신앙단계라고 할 수 있다. 타락으로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이탈한 인간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여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루는 양자(養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시기다. 이 시기의 신앙은 조건과 계약을 이행하는 교리적 수행과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완성기를 시의시대라고 한다. 시의시대는 모심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심

28) 위의 책 180-181쪽.

29) 위의 책, 181-183쪽.

정적으로 일체가 되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 시대로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인간인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자아실현을 위한 수행과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IV. 영성계발과 통일교 수행방법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신앙발달이 연대기적(chronological) 순서에 따라 발달하는 것을 아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전 단계를 품고 새로운 나이테를 형성하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신앙단계는 전단계의 신앙단계를 포괄한다.³⁰⁾

이 세 단계는 동시에 혹은 연대기적(chronological)으로 발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초신자가 회심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도 있고, 오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도 이 세 신앙발달 단계를 오르내릴 수 있다. 따라서 영성계발을 위한 수행과정은 단계를 통한 수행이 이루어지거나 여러 유형의 수행방법들이 동시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의 수행방법을 율법적 수행, 교리 수행 성례전 수행, 자아실현 수행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겠다.³¹⁾ 이 수행의 방법들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1. 율법적 수행

율법적 수행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필연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생활에서 “하라” “하지마라” 등 계율을 지키는 것과 고행, 금욕을 통해서 자아를 주관하는 훈련을 말한다.

모세의 10계명에 해당하는 사항은 통일교인이 지켜야 할 계명에 해당한다. 특히 “간음을 하지 마라”는 통일교인들이 지켜야 할 제 1계명으로 삼고 있다. 순결을 지켜야 할 제 1계명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원죄가 인간시조의 불륜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교리에 의해서다.

30) John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p.90-91.

31) 수행방법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Paul Tillich의 견해를 따랐다. Tillich는 자기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수행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실현을 위한 수행은 필자가 사용한 용어다.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78-84.

통일교 입교인은 누구나 입교식을 위해 7일 금식을 해야 하며 교인 전체 혹은 개별적으로 7일, 3일, 1일 등 금식을 한다. 금식은 과거 생활을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의 출발을 위한 의례다. 과거의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의례이며 고통을 통해서 자아를 주관하는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활에 있어서 금주, 금연 등 “하지마라”에 해당하는 계율을 지켜야 하며, 기도, 전도, 헌금, 헌신 등 “하라”에 해당하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금욕주의적 생활과 헌신의 생활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의 영역을 초월하여 궁극적 실재와의 만남”³²⁾을 위한 수행이며 심정계발을 위한 수행이다.

2. 교리적 수행

교리적 수행은 의식적(意識的)이고 이지적(理智的)으로 경전을 이해하고 경전의 말씀을 화육하기 위한 과정이다. 통일교의 경전에는 통일교의 교리를 밝히는 『원리강론』과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선생의 설교집인 『문선명선생말씀선집』이 있다. 통일교인의 교리 이해와 교리적 삶을 위해 1일, 2일, 3일, 7일, 21일, 40일 등의 ‘원리수련’이 있다. 그리고 『문선명선생말씀선집』을 매일 읽고 명상을 하는데 이 경전을 읽는 것을 ‘훈독’이라고 하며 훈독을 위한 모임을 ‘훈독회’라고 한다. 훈독회는 통일교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생활의례의 하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경배, 가정맹세 암송, 기도, 경전 훈독, 말씀에 대한 묵상 순으로 이루어진다.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선생은 1997년 9월 1일 모든 통일교회 신도들은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가정맹세를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하였다. 문선명 선생은 매일 새벽 5시부터 가족과 교인들이 모여 2시간 이상 훈독회를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인들은 아침과 저녁에 두 차례에 걸쳐 가족 혹은 교인들이 모여 훈독회를 실시하고 있다.

훈독회는 통일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경전을 훈독하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게 된다. 훈독회는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다. 새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간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훈독회의 텍스트가 되는 『천성경』, 『평화훈경』 등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의 훈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말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을 듣기 위함이다.”³³⁾

32) P. Tillich, 앞의 책, 82쪽.

33) Rudolf Bohren, 박근원 역, 『설교학 실천론』(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21쪽.

훈독회는 통일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영성생활을 위한 수행의 하나다. 훈독회는 통일교 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리적 수행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기위한 실천이 포함된 통합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율법적 수행, 교리 및 성례전 수행, 자아실현의 수행을 통합하는 수행방법으로 초심자나 신심이 깊은 신앙인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의 의례가 된다.

3. 성례전 수행

웨스터호프는 “인간은 본래 의식(儀式)을 위해 창조되고 또한 의식이 인간을 만든다.”고 하였다.³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일상적인 삶과 생의 특별한 단계에서 의식을 행하며 그 의식에 맞추어 인간다움이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신앙인은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에 신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믿는다. 성화된 장소나, 성화된 물건, 성화된 시간 등에 신적인 힘과 능력이 임재하여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참여한다.

종교의식(宗教儀式)은 인간에게 종교적 주제들과 만나게 하며 종교적 주제들을 성육신시켜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종교의식을 통해 신적인 것들과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며, 창조와 구원을 경험하게 해준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므로 그 종교가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통일교에서 행하는 의례를 생활의례, 통과례, 성별례, 성력(聖曆)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⁵⁾ 생활의례로써 경배식, 훈독회, 기도가 있다. 경배식은 아침에 훈독회를 시작하면서, 외출 후 가정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인사드리는 의례이다. 통일교회에서는 기도를 보고라고 한다. 보고생활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활영성계발을 위한 중요한 수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과의례는 봉헌식, 축복식, 승화식 등이 있다. 봉헌식은 아이가 출생하여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축복식은 성인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한 한 가정을 이루는 의식이며, 승화식은 지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장례식을 말한다. 이 통과의례는 영성계발의 출발과 완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례는 성년 혹은 성수로 소유를 분별하는 의례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과 만물이 사탄의 주관권 하에 있으므로(고린도 후서 4장 4절) 성별에 의하여 하나님 소유로 분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통일교는 성력(聖曆)에 의한 재창조와 재가입의 의미를 갖는 의례들이 있다. 8대명절, 선포일 등 이러한 의례들은 타락한 세계를 창조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4) 위의 책,

35) 이재영, 심정교육론(서울: 성화사, 1989), 43-49쪽.

복귀섭리역사의 한 단계를 매듭짓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성례전적 수행이라고 한다.

4. 자아실현수행

신앙발달을 말하는 학자들 대부분 신앙발달의 최종단계를 보편적 신앙단계라고 말한다. 이 보편적 신앙단계는 자아실현 단계에 해당한다.³⁶⁾ 자아실현이란 자신이 더 이상 물음의 대상이 아니며, 위함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통일신학에서 신앙발달의 최종단계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일체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다.

말씀선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심정”과 “위하여 살아라”는 말씀이다. 심정은 인간이 회복해야 할 본성이고, “위하여 살아라”는 통일교인의 생활 규범으로 제시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하여 살아라” 것은 단지 신앙인의 좌표로써 주어진 목표나 권고사항이 아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위하여 살 때만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정언적(定言的)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상대적 관계 안에서 인간이 존재하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 관계란 단순히 두 인간의 교류가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인간은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이다. 각 종교에서 인간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 가치로써 사랑, 자비, 인(仁)을 제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정이란 말은 관계적 언어로써 관계 안에서 그 개념이 이해되고 관계 안에서 계발된다. 심정의 정의는 사랑하고 기쁘고자 하는 충동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사랑과 기쁨은 대상을 통해서 오는 정적 충동인 것이다. 심정의 유발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성은 관계 안에서 계발되고,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천에서 계발된다고 할 수 있다. 일상의 삶에서 위하는 삶의 실천이 자아실현의 수행이다.

V. 맺는 말

영성이라는 말이 각 분야에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게 쓰이고 있지만 인간이 지향해야 할 품성이라는 것은 공통적 사실이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영성의 계발은 공통적 화두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종교에서 영성의 이해와 계발은 그 종교의 존재

33) 신앙발달 단계를 말한 J. Fowler 신앙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서 “보편적 신앙”을 말하고 있으며, 도덕발달론을 말한 L. Kohlberg는 도덕 발달의 마지막 6단계를 보편적이고 윤리적 단계로 말하고 있다. James W. Fowler, *Stage of Faith*(San Francisco, Haper and Row, 1981)와 로널드 더스카, 마릴린 윌러, 정경사 편집부 역, 『배아제, 콜백 도덕발달 입문』(서울: 정경사, 1984) 참조.

의미이며 종교교육의 핵심 주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에서 사용하는 영성의 의미와 영성계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심정이라는 말이 영성을 포괄하고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심정은 사랑하고 기쁘고자 하는 충동으로 영성의 원인과 주체로서 작용한다. 영성계발은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기쁘고자 하는 충동과 반응, 즉 심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성계발은 부활과정과 마찬가지로 소생기 행의시대, 장성기 신의시대, 완성기 시의시대 등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따라서 영성계발을 위한 수행과정도 단계가 필요하다. 그 단계를 율법적 수행, 교리적 수행, 성례전 수행, 자아실현 수행, 등으로 구분해 보았다. 그러나 이 단계는 영성계발의 단계라기보다는 영성계발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영성계발은 연대기적이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통일신학에서의 영성계발은 하나님과 나, 나와 너, 그리고 나와 자연의 3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 삼대관계가 심정적 관계로 형성될 때 영성이 계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한 통일교의 영성계발을 위한 수행방법으로 율법적 수행, 교리적 수행, 성례전 수행, 자아실현 수행 등이 있다.

작금에 통일교에서 영성계발과 수행에 대한 관심과 연구열이 고조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적인 선교행사에 진력하느라 자신의 영성을 돌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수행을 통해 풍요로운 영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성계발을 위한 수행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참고문헌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서울: 성화출판사, 199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편, 『원리강론』, 서울: 성화사, 1991.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이재영, 『심정교육론 연구』, 서울: 성화사, 1989.
통일사상연구원 편,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Rudolf Bohren, 박근원 역, 설교학 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Buber, Martin, translated by Ronald Gregor Smith, *I and Thou*,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Clinbell Howard, Well Being,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1992.
Joong Hyun Pak and Andrew Wilson, True Family Valus, New York: HSA-UWC, 1996.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ume 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80-85.
Westerhoff III, H. John,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원고접수: 2008년 11월 18일 1차심사: 11월 29일 게재승인일: 12월 2일

연구자 소개: 이재영

- ① 전공: 종교교육/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예배학, 명상과 수행
 - ③ 주요논저: 『성약시대의 예배와 설교』,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수행과정 공유를 통한 종교 간의 대화」,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메시지전달에 관한 연구」
 - ④ E-mail: jaeylee2@hanmail.net
-

Abstracts

The Ascetics Practice and Development of Spirituality in Unification Theology

Lee, Jaeyoung

Sun Moo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icate the concept of “spirituality” of the Unification theology and introduce the systematic methods of developing the spirituality. The word *spirituality* is not found in the textbooks of Unification theology, nor in the Founder’s preaches. In its stead, “Heart” is used, which not only implies but also substantiate the concept of spirituality. Heart refers to “an affective drive to get pleased through love”, represents the God’s deity, and also represents the true characters of the human beings as they are created.

The purpose of religious education is to cultivate men of spirituality, and its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to serve that purpose. Spirituality should be cultivated through an integrative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and what makes an integrative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of spirituality possible is Heart.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Theology, human beings a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accomplishing the three Great Blessings, namely, Individual Perfection, Family Perfection, and Perfection of Domination for Whole Creation. The God’s three Great Blessings are the very *raison d’être* for men, and the spirituality is cultivated in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the three Great Blessings.

In the discussions of Unification Theology, Heart substitutes for spirituality and resurrection substitutes for the cultivation of spirituality. Resurrection refers not to a physical or spiritual phenomenon but to a change from non-existence to existence. In other words, it refers to the restoration of once lost God’s love.

As beings of intellect, emotion and will, we all strive for truth, beauty, and goodness. And spirituality is cultiva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tellect, emotion and behavior. Under the Unification doctrine, these three dimensions of spirituality are developed by legalistic ascetic practices, doctrinal ascetic practices, sacramental ascetic practice, and self-realization ascetic practices.

Key words : *Spirituality, Development of Spirituality, Resurrection, Ascetic Practices*